



하나 글로벌 리서치

2021년 6월 11일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테슬라 점유율 1위 재탈환

5월 전기차 판매량 YoY +174%

2021년 5월 중국 전기차(BEV+PHEV, 승용차 도매 기준) 판매량은 동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비 소폭 감소(YoY -2%)했음에도, 전년비 174% 증가한 19.6만대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상반기 기저와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매월 세자리 수의 고성장을 시현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침투율(승용차 도매 기준)은 10%로 2020년 연간 침투율 6% 대비 4%p 증가하였다.

5월 전기차 판매량 1위가 9개월만에 변경되며 상위 브랜드 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월 2위이던 테슬라가 5월 점유율 17%(YoY +2%p, MoM +3%p)를 차지하며, 11개월만에 중국 전기차 월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판매량 집계가 시작됐던 'Model Y'의 5월 판매 호조(MoM +135%)가 시장지배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 뒤를 이어 BYD 16%(YoY +2%p, MoM +3%p), 상해GM우링 14%(YoY +11%p, MoM -2%p)로 5월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 3위를 차지했다.

BYD: 5월 중국 전기차 2위 탈환. 2분기부터 신차 효과 기대

올해 3월 '한'의 견조한 수요와 더불어 신차 '친Plus DM-i' 판매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BYD 시장점유율은 2월 저점에서 반등하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BYD는 신차 DM-i 3종이 기대치보다도 높은 판매량으로 인해 인도까지의 대기 기간이 3.5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초까지 DM-i 3종 누적 주문량이 10만대를 상회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3~4월 출시된 신차 '친/송Plus EV' 및 'D1'의 판매량 증가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차 효과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BYD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테슬라: 1위 기록했으나 7~8월 판매량 주목할 필요

테슬라의 5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3.3만대를 기록하며, 최근 중국 내 악재로 판매량이 급감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YoY +202%, MoM +29% 증가하였다. 악재에도 테슬라의 5월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는 전월 2주간 Model Y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연된 물량이 5월에 집중적으로 인도되며 5월 판매량에 집계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승용차협회는 중국 내에서의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인한 테슬라의 주문량 감소 여부는 7월이나 8월에서야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테슬라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쟁업체인 BYD와 전기차 스타트업 3사 등 로컬업체의 주가와 판매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선호도 ★★★☆☆

성장성 ★★★ 모멘텀 ★★★ 밸류에이션 ★★★

Top picks 및 관심종목

종목명	투자선호도	목표가	CP(6월9일)
BYD(01211.HK)	★★★★☆	225.13HKD	199.50HKD
NIO(NIO.US)	★★★★☆	60.06USD	42.74USD

BYD Financial Data

백만 HKD	2019	2020	2021F	2022F
매출액	121,778	153,469	191,366	230,988
영업이익	5,834	9,965	10,118	13,248
순이익	1,614	4,234	4,842	6,627
EPS(HKD)	0.6	1.5	1.7	2.3
EPS(YOY, %)	(42.2)	149.2	16.5	36.8
ROE(%)	2.6	7.4	7.6	8.8
PER(배)	69.5	116.4	101.3	74.1
PBR(배)	1.8	8.4	7.0	6.4
배당률(%)	0.2	0.1	0.1	0.1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중국/신흥국기업분석 백승혜
02-3771-7521
sh_baek@hanafn.com

RA 한수진
02-3771-8145
sjhan@hanafn.com

중국 전기차: 5월 전기차 판매량 YoY +174%

2021년 5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비 174% 증가한 19.6만대 기록

5월 전기차 판매량 1위는 테슬라로 점유율 17% 차지. 그 뒤를 이어 BYD와 상해GM우링이 2, 3위 기록

2021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규모보다도 2배 정도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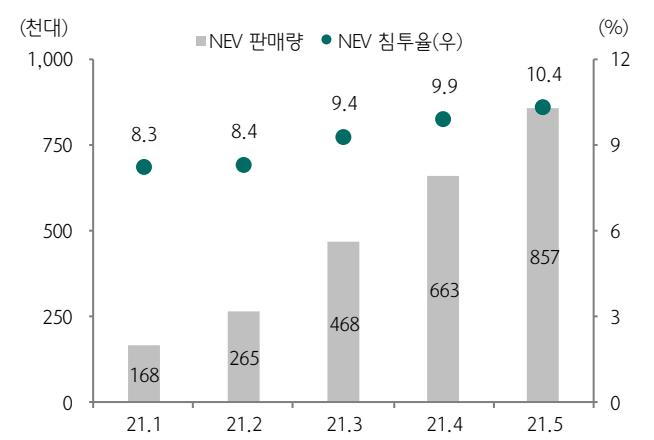
2021년 5월 중국 전기차(BEV+PHEV, 승용차 도매 기준) 판매량은 동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비 소폭 감소(YoY -2%)했음에도, 전년비 174% 증가한 19.6만대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상반기 기저와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매월 세자리 수의 고성장을 시현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침투율(승용차 도매 기준)은 10%로 2020년 연간 침투율 6% 대비 4%p 증가하였다.

5월 전기차 판매량 1위가 9개월만에 변경되며 상위 브랜드 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월 2위이던 테슬라가 5월 점유율 17%(YoY +2%p, MoM +3%p)를 차지하며, 11개월만에 중국 전기차 월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판매량 집계가 시작됐던 'Model Y'의 5월 판매 호조(MoM +135%)가 시장지배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 뒤를 이어 BYD 16%(YoY +2%p, MoM +3%p), 상해GM우링 14%(YoY +11%p, MoM -2%p)로 5월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 3위를 차지했다. 상해GM우링은 모델 '홍광 MINI'의 판매량 집계가 시작됐던 전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op 1을 유지하였으나, 올해 2월부터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 MoM 증감폭보다도 언더퍼포먼스하며 시장점유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5월 누적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1위 브랜드는 상해GM우링으로 점유율 19%를 기록하며 4월 누적 점유율 대비 -2%p 하락하였으며, 2위인 테슬라(점유율 15%)와 3위 BYD(점유율 13%)는 1%p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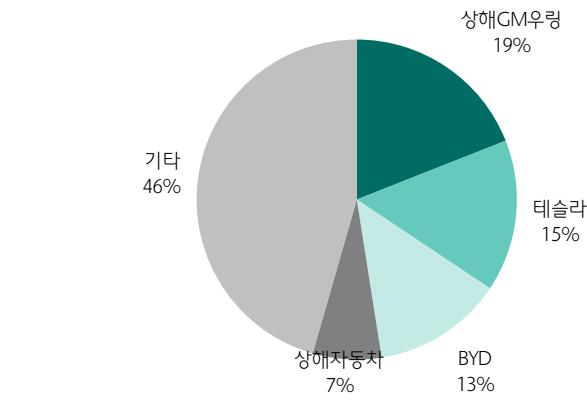
2021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규모보다도 2배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전년 기저 효과 소멸로 상반기의 세자리 수 고성장 대비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중국 전기차 5월 누적 판매량 및 침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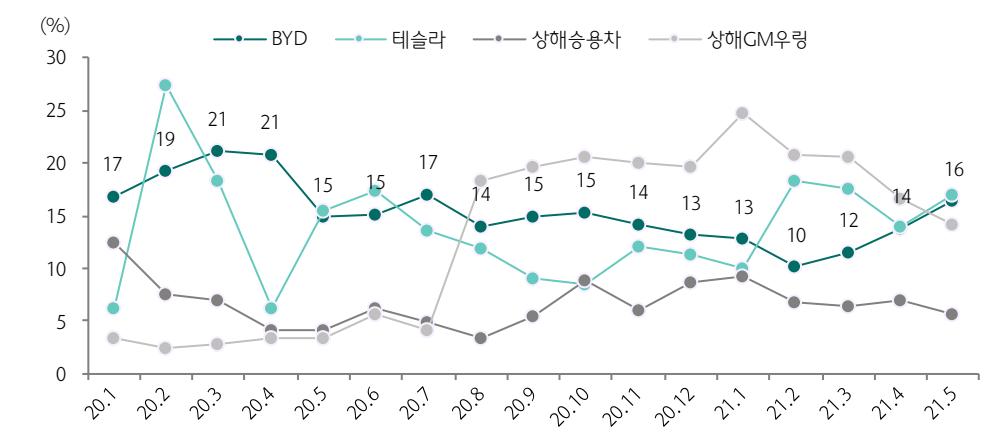
주: 2021.01-2021.05 승용차 도매 누적 기준, NEV=BEV+PHEV
자료: CPCA,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중국 전기차 5월 누적 시장점유율



주: 승용차 도매 기준
자료: CPCA,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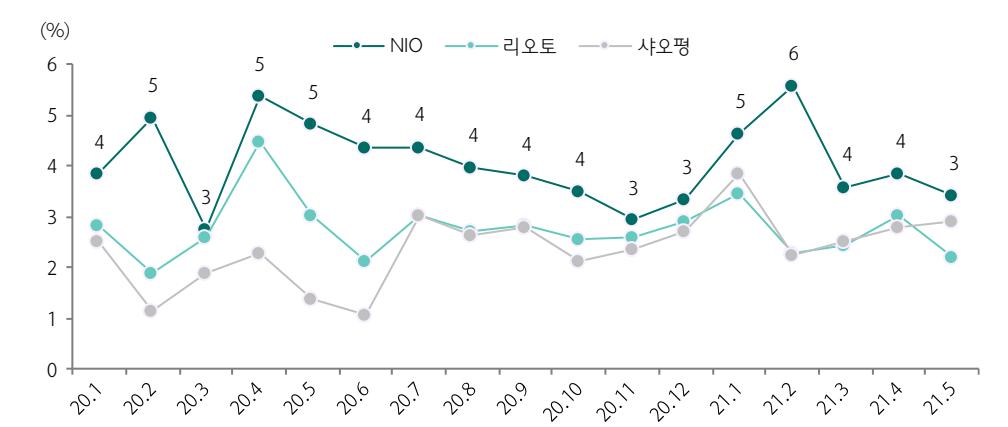
그림 3. 중국 전기차 Top 4 월별 시장점유율 추이



주: 승용차 도매 기준

자료: CPCA,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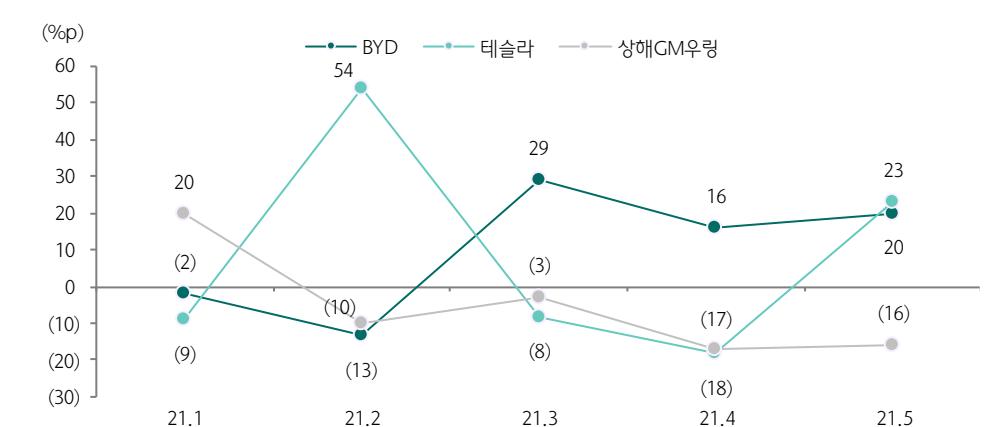
그림 4.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 월별 시장점유율 추이



주: 승용차 도매 기준

자료: 각사, CPCA,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중국 전기차 Top 3 평균 대비 판매 증감세(MoM) 비교



주: 1) 승용차 도매 기준, 2) x축=중국 NEV 월별 판매량 MoM

자료: CPCA, 하나금융투자

BYD(1211.HK): 5월달 중국 전기차 2위 탈환. 2분기부터 신차 효과 기대

BYD 시장점유율은 2월 저점에서 반등하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세

신차 효과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BYD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BYD 전기차 판매는 전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 MoM 증감폭보다도 언더퍼폼하며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올해 3월 '한(汉)'의 견조한 수요와 더불어 신차 '친(秦)Plus DM-i' 판매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BYD 시장점유율은 2월 저점에서 반등하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BYD는 신차 DM-i 3종이 기대치보다도 높은 판매량으로 인해 인도(Delivery)까지의 대기 기간이 3.5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초까지 DM-i 3종 누적 주문량이 10만대를 상회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3~4월 출시된 신차 '친(秦)Plus EV', '송(宋)Plus EV' 및 'D1'의 판매량 증가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차 효과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BYD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BYD 주요 모델 월별 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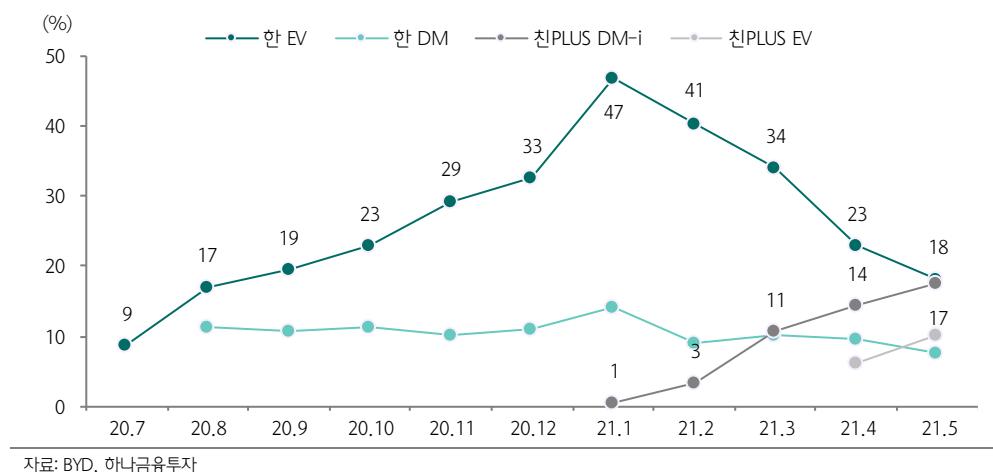


그림 7. BYD 모델 '한(汉)' 월별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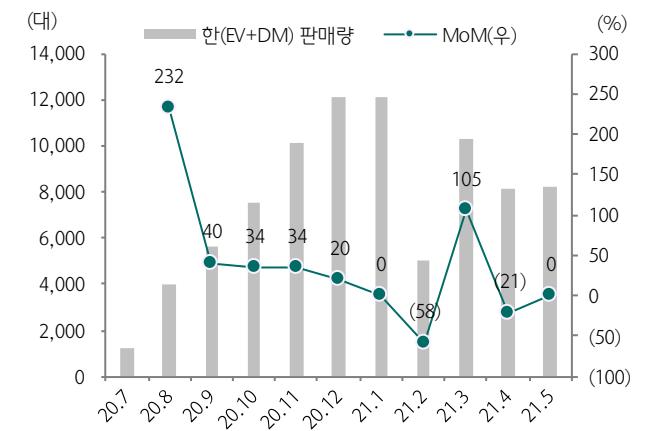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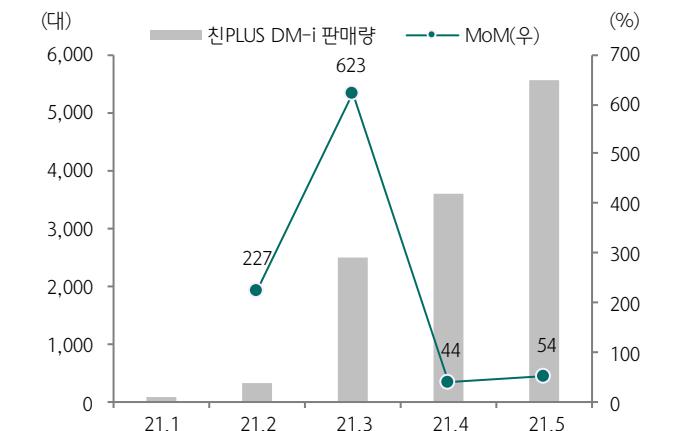


그림 8. BYD 모델 '친(秦)PLUS DM-i' 월별 판매량 추이



테슬라(TSLA.US): 5월달 중국 전기차 1위 기록했으나 7-8월 판매량 주목할 필요

테슬라의 5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최근 중국 내 약재로 판매량이 급감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YoY +202%, MoM +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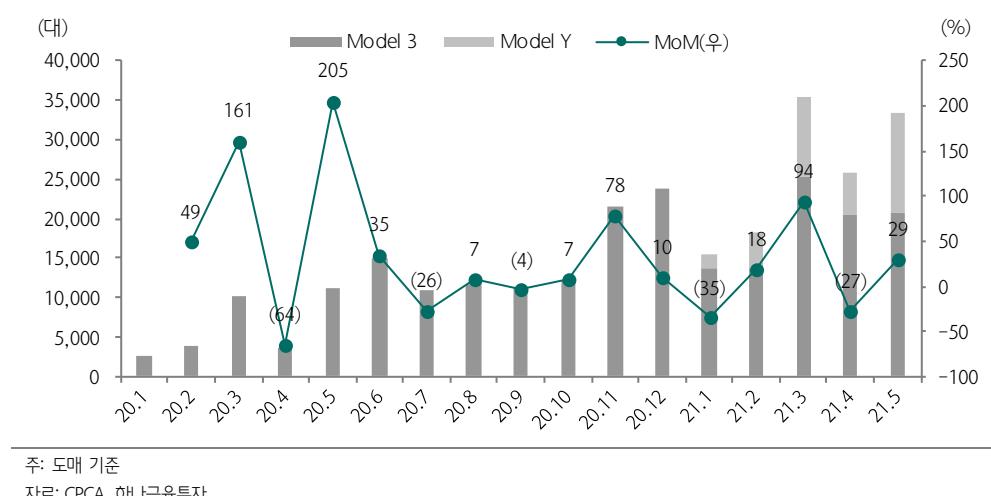
테슬라의 5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중국 판매+수출)은 3.3만대를 기록하며, 최근 중국 내 약재로 판매량이 급감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YoY +202%, MoM +29%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브레이크 결함 인한 중국인 테슬라 차주의 시위를 시작으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 유출 위험성 명목으로 중국 정부 기관 건물 인근에 테슬라 차량 주차 금지와 일부 공무원들은 테슬라 차량 구매를 금지한다는 내부 통지를 받는 등 테슬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 및 최근 안전벨트 결함 인한 리콜 등으로 인한 품질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매체인 더인포메이션에서 테슬라의 5월 중국 주문량이 전월의 절반 수준인 9,800대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며 해당 보도 당일 테슬라 주가는 -5.33%로 급락 마감했다.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인한 테슬라의 주문량 감소 여부는 7월이나 8월에서야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

테슬라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BYD 등 로컬업체의 주가와 판매 실적에 호재로 작용

이러한 악재에도 테슬라의 5월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는 전월 2주간 Model Y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연된 물량이 5월에 집중적으로 인도(Delivery)되며 5월 판매량에 집계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내에서의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인한 테슬라의 주문량 감소 여부는 7월이나 8월에서야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테슬라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쟁업체인 BYD와 전기차 스타트업 3사 등 로컬업체의 주가와 판매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9. 테슬라 중국 월별 판매량 및 증감율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예)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6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예)는 2021년 6월 11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